

# 오늘부터 전국 '봄비'...그친 뒤 '기온뚝'

### 저기압 영향 4일 오후 비 시작...사흘동안 제주·남해안·지리산 부근 시간당 20~30mm "봄비 치고 많은 강수량 예상...피해 대비" 7일 이후 대륙고기압 영향...중부내륙 영하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뒤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상청 수시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4일부터 중국 산둥지방에서 서해상을 지나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한 남서풍을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5일 수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강

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지형적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6일에는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4~6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 제주도(북부해안 제외), 서해5도, 경남권남해안, 경남남서내륙 30~80mm ▲많은 곳 전남동부남해안,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남부 120mm 이상, 제주도산지 200mm 이상이다.

이외에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전북, 경북북부내륙, 경남권(남해안, 남서내륙 제외) 20~60mm ▲강원동해안, 충북, 제주도북부해안, 경북권(북부내륙 제외), 울릉도·독도 10~40mm이다.

저기압이 지나간 뒤에도 2차 기압골의 영향으로 7일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 기간 저기압의 발달로 인해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서 전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고 해안·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봄비 치고는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주말동안 발생했던 산불 지역의 경우 많은 비가 내릴 시 산사태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배수로 등 시설물 관리 ▲축대·옹벽 붕괴, 산사태 ▲하천·계곡물 범람 ▲교통운행시 가시거리 감소 ▲풍랑·강풍에 따른 시설물 관

리 및 해상·항공교통 안전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비가 그친 뒤 7일부터 우리나라 북쪽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의 경우 내일 낮까지 맑은 날씨로 인해 평년보다 높다가 비가 내리며 6일까지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7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평년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내륙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질 수 있겠고, 중부내륙·산지에는 서리와 얼음이 나타나 냉해 피해가 우려된다.

박 예보분석관은 "이번 비가 어느정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가 시작되면 건조특보도 해제되며, 산불 위험 감소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 완도해경, 해상공사현장 동원선박 사고예방 점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완도 청경해역을 수호하기 위한 '해상공사현장 및 동원선박 해양오염 예방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여수소방, 영취산진달래축제 소방안전대책 추진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는 제31회 영취산 진달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강진소방,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적극 권고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3월 30일 강진소방서에서 강진군 관내 목욕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등 담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광양소방, 일반인 심폐소생술 자체경연대회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지난 3월 29일 오후 광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자체 경연대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장흥소방,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지난 3월 29일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 나주경찰, 교육청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3월 31일 금성중·고등학교, 나주공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서, 학생위원장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송준표기자

## "4대강 보 '물그릇' 활용"...환경부, 중장기 가뭄 대책 추진

### '광주·전남 가뭄 대책'도 발표...이달 중 확정

환경부가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보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구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분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 수위를 올려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 해체 등을 결정한 전 정권을 지적하며,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순천을 방문해서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4대강 보 활용을 지속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 확보 실패로 이어

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최대수위(관리수위) 대비 최저수위(하한수위) 차이는 5280mm이다. 영산강(송촌보·죽산보)의 경우 1560mm에 달해, 광주 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이 손실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는 4대강 보 해체나 개방 결정이 지금의 가뭄 상황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기정 광주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민의 식수원은 영산강이 아닌 섬진강 수계"라며 "최악의 가뭄 때문에 덕흥보와 강변여과수(심층수) 등 영산강 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4대강 보 해체나 보 개방(영산강 송촌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이번 4대강 보를 활용하는 중장기 대책이 보 해체 등 지난 정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할 하기 때문에 보를 더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가 현재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보 해체 등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16개의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도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해체

를) 안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보 처리 방안 세부 실행계획 등을 담은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보 해체를 전제로 용역을 한 것으로 보의 해체, 철거 시기에 대해서는 담겨져 있지 않다"며 "검토 이후 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날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대책도 발표했다. 이달 중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별과 과거에 경험한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암댐에서 광주, 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48만t/일) 중 일부(10만t/일)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암댐 여유물량은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사천 취수장부터 여수산단까지 도수관로(45.7km)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 주암조절지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또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 추진, 전남 4개 시·군(고흥·광양·보성·순천)의 물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2곳의 지하수저류댐 개발 검토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나주·목포·순천·영광·장성·진도·함평·화순 등 전남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공공관정 개발과 노후 공공관정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신규 수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2035년까지 여수시 전체 시민이 한해 사용하는 물(4400만t)에 육박하는 연간 4200만t의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 개량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수질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수계기금을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2단계 비상대책은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 발생을 가정해 1단계보다 하루 16만t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책이다. ▲댐 비상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섬(도서) 지역의 경우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남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할 방침이다. 도서 지역의 숙원 사업인 광역상수도의 경우 경제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광역상수도가 섬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해저터널 등 관로가 필요하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지하수 저류댐이나 해수담수화를 먼저 하는 것이고, 광역상수도 부분은 장기적으로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시원한 분수대 산책

초여름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외국인들이 분수대 옆을 걷고 있다.

## 윗집 찾아가 쇠파이프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경찰이 증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쇠파이프로 물건을 부수고 주인을 폭행한 40대 아파트 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경찰서는 윗집 물건을 부수고 주인을 때린 혐의(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주거침입)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목포 이로동 한 아파트 내 위층 B(47)씨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집에서 행거온 쇠파이프를 휘둘러 주방 선반을 부수고 B씨의 팔을 때린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는데 '쿵쿵'소리가 나 시끄러워 찾아가다"고 진술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